

# 獨逸浪漫主義批評論

池 明 烈

(獨文學科 教授)

## I.

研究動向：世界文學史에서 같은 낭만주의 문학이라 해도 유독 獨逸浪漫主義는 그 受容과 研究 과정에서 이상하리만큼 독일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밀착되어 있다. 즉 3월 혁명 전기의 한 때와 세계 제 2 차대전 직후에는 낭만주의란 곧 반동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가하면 독일인은 낭만적인 것을 독일 국민성과 동일시하여 이를 찬양하기도 한다. 결국 찬반 양론의 대부분은 論者의 정치적 입장에서 낭만주의를 비평하는 경우가 많았다. 낭만주의 평가에 최초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헤겔의 <美學講義>이고, 다음이 하이네의 <독일낭만파>이다. 헤겔은 낭만주의를 「터무니없는 無責任한 主觀主義」라고 단정하였고, 하이네는 啓蒙主義와의 대립관계에서 낭만주의를 거론하면서 낭만주의를 반동으로 규정하였다. 그 영향을 받아 낭만주의를 다시 古典主義와 대치시킴으로써 낭만주의의 특질 또는 개념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150여년에 걸친 장구한 낭만주의 연구사 중 舊世代의 것은 차치하고 종전 이후의 연구경향을 개관하면, 우선 낭만주의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연구는 1947년 튜빙겐(Tübingen)대학에서 시도한 연속강의가 그 출발점이 된다. 이 강연에서 문학, 철학, 종교, 역사, 음악, 미술과 자연과학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각자 자기 전공분야와 낭만주의와의 관련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 究明을 시도하였다. 이 연속강의의 일반적인 경향은 대체로 1920년대 또는 30년대의 정신사적 기술에 입각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파울 클루크혼(Paul Kluckhohn)은 연속강연의 도입 강연 <낭만주의 운동의 전제와 경과>에서 「낭만주의는 전 독일적인 운동이었다」<sup>1)</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그가 이미 1941년에 간행한 <독일낭만주의 理念總體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에서 밝힌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연속강의에서는 제 3 제국시대의 낭만주의 연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는 비판적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1940년 후반에서 50년대에 걸쳐 독일문예학의 새로운 주류는 에밀 슈타이거(Emil Steiger)

\* 본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1) Theodor Steinbüchel (hg.): Romantik. Einzyklus Tübinger Vorlesungen, Tübingen u. Stuttgart 1947, S. 26.

의 作品內在的解釋이었다. 그러나 작품내재적해석은 해석자의 문학적 소질에 좌우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걸쳐 다시 歷史的文獻學的方法으로의 復歸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경향에서 F. 슐레겔, 노발리스, 부렌타노, 아이헨도르프의 校訂版 全集(Kritische Ausgabe)의 出版이 성행하였다. 이 전집들은 각 작가의 작품들을 엄밀하게 문헌학적 방법에 의하여 校訂한 것들이다.<sup>2)</sup>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는 문학을 社會史的 立場에서 연구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대의 독일 사정은 정치 사회면에서 중대한 변혁을 체험하고 있었다. 즉 아테나워 시대가 지나고(1963), CDU와 SPD가 大聯立政府를 수립하고(1966), 마침내 빌리 브란트(Brandt)가 종전 이후 최초로 社會黨 출신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1968년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격렬한 學生運動을 격기도 하였다. 정치는 이제 종래의 작가나 지식인이 기피하던 비지성적 현실영역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참여의 광장을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학 연구경향이 대두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급에까지 그 연구방법은 지속적으로 답습되고 있다. 그밖에 최근 문학연구방법으로 대두한 受容史的方法을 비롯한 새로운 연구방법도 낭만주의 연구에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헬무트 프랑(H. Prang)편 <낭만주의 개념규정><sup>3)</sup>과 크라우스 페터(K. Peter)편 <1945년 이후의 낭만주의 연구><sup>4)</sup>에 수록된 주요 논문을 선정하여 그 연구경향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독일낭만주의에 관한 방대한 수의 대소 논문 저서를 정리·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도 감행할 수 없는 작업이며, 또한 낭만주의에 관한 비평적 연구를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비평을 첨가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일 뿐 아니라 별로 의미 없는 도로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몇 편의 논문을 충실하게 읽고, 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함으로써 후학들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한정한다. 지면 관계로 누락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같은 제목하에 발표, 소개하고자 한다.

## II.

啓蒙主義・古典主義와 浪漫主義의 對立關係：낭만주의가 계몽주의의 대립적 사조라는 중

- 
- 2) Ernst Behler (hg.): Kritische Friedrich Schlegel Ausgabe, 35 Bde., Paderborn 1958.  
Paul Kluckhohn u.a. (hg.): Novalis Schriften. Die Werke Friedrich von Hardenbegs 4 Bde., Stuttgart 1960~75.  
Helmuth Koopmann u. Hermann Kunisch (hg.): 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 Historisch-kritische Ausgabe sämtlicher Werke, ca. 25 Bde., Regensburg 1962.  
Jürgen Behrens, Wolfgang Frühwald u. Detlev Lüders (hg.): Clemens Brentano. Sämtliche Werke und Briefe. Historischkritische Ausgabe, ca. 40 Bde., Stuttgart 1975.
- 3) Helmut Prang (hg.): Begriffsbestimmung der Romantik.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72. 이하 Begriffsbestimmung으로 표기.
- 4) Klaus Peter (hg.): Romantikforschung seit 1945, 1980. 이하 Romantikforschung으로 표기.

래의 수많은 견해에 대하여, 라쉬(Rasch)는 주목할만한 새로운 논문에서, 초기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많은 입장을 계승하여 발전하였고, 따라서 계몽주의에서 초기 낭만주의에 이르는 발전과정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sup>5)</sup>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발생하였다는 학설 중 대표적인 것은, H. A. 코르프(Korff)의 「낭만주의에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것은 계몽주의 시대이다」<sup>6)</sup>라는 주장과 그밖에 파울 클루크호른의 낭만주의가 통일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계몽주의에 대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명된다는 주장<sup>7)</sup>을 들 수 있다.

라쉬는 상술한 바와 같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초기 낭만주의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을 경멸하는 비평을 하였음은 사실이나, 과소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2~3류 계몽주의자들 특히 베를린의 후기 계몽주의에 한정된 것이고, 칸트를 비롯한 레싱, 볼테르, 록크 같은 유럽의 위대한 계몽사상가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라쉬의 해석에 따르면, 계몽주의에 의해서 교회, 신학의 後見에서 해방되어 서서히 인간의 자율성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 계몽주의 운동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초기 낭만주의가 이 운동의 발전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동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즉 계몽주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초기 낭만주의적인 省察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지가 개척되고 확립된 것이다. 正統派에 의한 신학적 후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계몽주의의 論據는 합리주의인데, 바로 이 합리주의적인 논증방법에 의해서 비합리의 가치도 노출시켰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고 감정과 사상을 교조주의의 桎梏에서 해방시켰다. 지금까지는 감정과 상상의 내용을 교조주의에 의해서 규정하고 평가해왔던 것이다. 이제 순수한 개인적 一回의인 감정이나 주관적 독창적인 상상력을 높히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自律性, 다시 말해서 느끼고 상상하는 자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계몽주의가 처음으로 촉진한 것이다.

F. 슐레겔이 낭만주의 문학의 形式概念을 정의한 단장(Athenäum Fragment 116)도 상술한 바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낭만적 문학만이 무한하며 또한 자유이다. 그 문학은 시인의 恣意는 어떠한 법칙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최고원리로 인정하고 있다」<sup>8)</sup>라는 규정은, 상상은 절대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며, 이와 같은 요구는 계몽주의가

5) vgl. Wolf Dietrich Rasch: Zum Verhältnis der Romantik zur Aufklärung, in: Ernst Ribbat (Hg.): Romantik, Athenäum Taschenbücher 2149, 1979, S. 7-21.

6) Hermann August Korff: Das Wesen der Romantik, in: Begriffsbestimmung, S. 186. "(...) der Gegensatz der Romantik und (...) ist die Aufklärung."

7) vgl. Paul Kluckhohn: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 5 Aufl., Tübingen 1966, S. 186.

8) Friedrich Schlegel: Athenäum Fragmente 116. "Sie allein ist unendlich, wie sie allein frei ist und das als ihr erstes Gesetz anerkennt, dass die Willkür des Dichters kein Gesetz über sich leide."

달성한 개인의 자주 독립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인의 자의는 바로 <해방>의歸結이라 하겠다. 그밖에 F. 슐레겔이 칸트가 표현한 계몽주의 개념을 계승하여, 「자기 스스로 사물을 생각한다는 이 정신을 고무하고 형성하는 데 적합한 서적은 레쥘의 저작보다 나은 것이 없다」<sup>9)</sup>고 한 논평은, 바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의 근본적인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노발리스도 같은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立法者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자기 자신의 법칙에만 따라야 한다」<sup>10)</sup>

Aber fordert nicht die Vernunft, daß Jeder sein eigener Gesetzgeber sein? Nur seinen eigenen Gesetzen soll der Mensch gehorchen.

종교에 관해서 계몽주의는 理神論의 입장을 취했고, <原宗教>, 즉 <自然宗教>를 개개의 歷史的 宗教나 既成宗教에 부각된 것과는 분명히 구별하였던 것이다. 초기 낭만주의자들도 계몽주의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진실한 의미에서 敬虔性의 존재만을 인정하였다. F. 슐레겔은 「종교 그 자체는 필경 영원하고 (...) 神과 같이 항상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새로 형성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11)</sup>라고 말함으로써, 계몽주의가 이해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 「宗教 그 自體」를 인정하면서, 「나는 새로운 종교를 창출하겠다. 또는 그것을 예고하는 데 助力하겠다」<sup>12)</sup>고 노발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쓰고 있다. 한편 노발리스도 1799년 「아직 종교는 없다. (...) 종교가 만들어지고 창출되어야 한다」<sup>13)</sup>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종교관 정립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1799년 익명으로 발표한 「종교에 관한 강연 Reden über die Religion」 第二講에서, 종교란 「우주를 직관하는 것 Anschauen des Universums」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기성종교라는 한정된 그리스도교를 기피하였다. 이 말은 그가 「종교 그 자체」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계몽주의의 영향, 즉 기성종교의 포기를 밝힌 것이다. 그가 독단적인 교리내용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도 계몽주의를 계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

9) Wolf Dietrich Rasch (hg.): Friedrich Schlegel. Kritische Schriften, 3 Aufl., München 1971, S. 385. "Schwerlich aber sind noch anderer deutsche Schriften besser geeignet, diesem Geist des Selbstdenkens zu erregen und zu bilden, als die Lessingschen."

10) Hans Joachim Mähl u. Richard Samuel (hg.): Novalis Werke II, München 1978, S. 307.

11) W. Rasch (hg.): Friedrich Schlegel, S. 95. "Die Religion an sich zwar ewig, (...) und unveränderlich wie die Gottheit, aber eben darum erscheint sie immer neu gestaltet und verwandelt."

12) Max Preitz: Friedrich Schlegel und Novalis, Darmstadt 1957, S. 138. "Ich denke eine neue Religion zu stiften oder vielmehr sie verkündigen zu helfen"

13) H.J. Mähl u.R. Samuel (hg.): Novalis Werke II, S. 753. "Noch ist keine Religion (...). Religion muß gemacht und hervorgebracht werden"

하여 「신이 없으면 종교도 없다」는 신앙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문제는 「신이 없는 종교가 신이 있는 종교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종교는 우주관이며, 인간이 우주 속에서 신을 발견하느냐의 여부는 「그 상상력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신앙심의 주관화가 계몽주의에 있어서 보다 슬라이어마허에 있어 한층 극단화되어 있다. 또한 寬容과 종교적 주관주의라는 계몽주의의 요구를 肯定하여 수많은 새 종교가 발전하여야 하며, 누구나 자기 성분에 따라 종교를 발전시킬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슬라이어마허는 어떤 형태이든간에 기성종교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사 종교가 歪曲된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종교 자체를 발견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노발리스는 「기독교 또는 유럽 Die Christenheit oder Europa」에서 계몽주의를 철저히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계몽주의는 카톨릭 신앙에 대한 증오를 점차 성서에 대한 증오로, 기독교에 대한 증오로까지 확대해 간 것이다. 그러나 노발리스의 그와 같은 비판은 역사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知的 成年에 달한 학자들이 司祭의 역할을 담당하고, 과학과 철학에 대한 교양인의 열광을 자아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계몽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몽주의의 부정은 역사적 철학적인 변증법에 의해서 마침내 肯定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18세기 말경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여러가지 統制나 後見에서 해방되어 오로지 낭만주의적인 사색과 詩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 해방의 댓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즉 정신적 자유를 얻은 댓가로 기독교 교회와의 종교적 연관을 상실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F. 슐레겔, 노발리스, 슬라이어마허가 상념하였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한다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그런 까닭에 1801년 노발리스 사망후 F. 슐레겔은 카톨릭교로 개종하였다. 이와 같은 轉向은 분명히 계몽주의에서 이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808년 F. 슐레겔이 개종함으로써 초기 낭만주의는 끝났다. 슐레겔의 개종은 대부분의 중기 낭만주의자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계몽주의와 극도로 대립하는 王政復古로 낭만주의가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낭만주의가 철저히 계몽주의에 적대하였다는 관점은 주로 중기 낭만주의를 고찰할 때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비니(Savigny)의 法律觀이다. 그는 낭만주의적인 정신에 따른 歷史法學派의 창시자로서 계몽주의를 不俱戴天의 적으로 간주하고 계몽주의와는 정반대의 역사관을 전개하였다.

피히테나 노발리스가 계몽주의의 自然法에 따른 사고방식을 계승한 데 반하여 사비니는 자연법에서 벗어났다. 자연법은 1800년경 이미 약화되어 가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법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특히 저명한 법학자 F.J. 티이보(Thibaut)는 1814년 자연법에 따른 저서 「보편적인 독일 民法의 필요성에 관하여 Über die Notwendigkeit eines allgemeinen bürgerlichen Rechts für Deutschland」를 발간하여 독일 전체에 유효한 法典을 요구하였다. 그 법전은 각 영주국의 법사이의 차이점을 제거하고 독일 통일을 향해서 일보 전진하려는 것이어서 독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성적이며, 보편타당하고 유익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사비니는 「立法 및 法律學에 대한 現代의 使命 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1814)」에 관한 논문에서 티이보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티이보의 제안에는 각 영주국의 法律事情을 억압하는 성급한 平等主義가 엿보이고, 따라서 티이보의 法律觀은 계몽주의의 自然法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비니는 아무리 小國의 것이라 해도 그 「慣習法 Gewohnheitsrecht」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관습법에는 단점도 있지만 사비니는 法律을 民族精神의 表現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옛 관습법을 완전히 재생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습법들 중에서 후일 독일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비니가 티이보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민족의 개념을 과장한 데 기인한다. 즉 法律이라는 것은 언어나 습관 등과 관련하여 민족의 창조물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das Gesetz)이란 민중 신앙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고, 상징적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일진대, 공식화된 法規 속에(in formulierten Gesetzen)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sup>

상술한 관점에서 볼 때, 중기 낭만주의 이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계몽주의를 해소하고자 한 王政復古를 사비니가 지지하였다는 점이다. J. 그림은 사비니의 견해에 찬성하였는데, 그 근원에 있어서 「法律도 言語, 風習이나 마찬가지로 민중적인 것」<sup>15)</sup>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크레멘스 브렌타노(Clemens Brentano)도 대단히 긍정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은 견해들로 미루어 보아 사비니의 저서가 중기 낭만주의의 정신적 작용에서 쓰여졌음이 확실하다. 중기 낭만주의는 초기 낭만주의에 비하여 계몽주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왕정복고조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에 철저하게 적대하여 그 영향이 19세기에 여러 분야에 스며들었다는 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이상이 라쉬의 논문 「계몽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관계」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에 대립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한때 유력한 학설로 인정되

14) vgl. Friedrich Carl von Savigny: 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Freiburg 1892, S. 77.

15) Wilhelm Schoof (hg.): Die Briefe der Brüder Grimm an Savigny, Berlin 1953, S. 172. "Das Recht wie die Sprache und Sitte volkstämmig"

16) vgl. Wilhelm Schellberg u. Friedrich Fuchs (hg.): Das unsterbliche Leben. Unbekannte Briefe von Clemens Brentano, Jena 1939, S. 442.

어 왔다. 특히 프리츠 슈트리히(Fritz Strich)는 그의 主著「獨逸 古典主義와 浪漫主義」<sup>17)</sup>에서 몇 가지 현저한 특징을 상호 대립시킴으로써, 낭만주의를 괴테나 실러의 고전주의와 구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고전주의는 평온함과 다양하게 分派하면서도 보존되고 있는 통일성, 彫塑的인 깊이, 현재적인 것의 강조, 생생한 형식, 확실성, 완전성 또는 완결성이 그 특색이다. 한편 낭만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는 끊임없는 운동, 유동 속의 통일, 항상 변전하는 繪畵의 無限定性, 목표나 한계 또는 방향이 일정치 않은 동경, 음악성, 不明瞭性, 무한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슈트리히가 명확한 분류를 시도한 데 대하여, 율리우스 페터센(Julius Petersen)은 그와 같은 범주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절대적인 本質規定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18)</sup> 그밖에 블랑케나겔(Blankenagel)도 독일 낭만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고전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술레겔 형제나 노발리스 같은 전기 낭만파 시인들이 고전주의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고전주의를 보완·확충하는 데 주력하였고, 따라서 초기의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와 대립한 것이 아니라 후에 점차 고전주의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sup>19)</sup> 왈터 린덴(Walther Linden)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전기 낭만파 시인들은 슈트름 운트 드랑 시대의 비합리주의를 혁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深淵, 測定할 수 없는 情感, 모든 제한을 벗어난 總體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고전주의의 정신적 성과를 무시하지 않았다. 비합리적인 여러 힘과 합리적인 여러 힘을 고차원적으로 결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낭만주의는 의식, 內省, 합리적인 요소를 고전주의보다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그런 까닭에 낭만주의는 당초 詩的 創造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철학적 비판적인 경향이 농후하였다. 한편 낭만주의는 감각을 초월한 세계, 꿈과 동경, 무의식의 세계나 신비의 세계, 인간이 판단력이나 思考過程에 의해서 알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感知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층 민감하게 깊숙이 몰입하였다.」<sup>20)</sup>

이상에서 낭만주의가 선행한 문학사조와 대립적이라는 학설에 대한 반론을 열거해 보았다.

### III.

독일문학의 轉向으로서의 낭만주의 : 루카치는 상술한 논자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낭만주의가 선행한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공히 대립적인 문학사조라는 견해를 「독일문학의 轉向

17) Fritz Strich: Deutsche Klassik und Romantik, 3 Aufl., Bern 1928 (zusammenfassung).

18) vgl. Julius Petersen: Die Wesensbestimmung der Romantik, Leipzig 1926, S. 101.

19) vgl. John Blankenagel: Die Hauptmerkmale der deutschen Romantik, in: Begriffsbestimmung, S. 324.

20) Walter Linden: Hofstaetter und Peters. Sachwörterbuch der Deutschkunde II, Berlin (Teubner) 1930, S. 1021 (gekürzt).

으로서의 낭만주의」<sup>21)</sup>에서 밝히고 있다. 우선 예술 이론면에서 F. 쉴레겔의 〈斷章 116〉을 인용하면서 낭만주의를 고전주의와 대비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고전주의가 중요시한 것은 市民的 日常生活이라는 散文에 대하여, 현실의 가장 깊은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文學(Poesie), 즉 인류의 본질 또는 인류의 가치적인 法則을 제시하는 문학을 對置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엄격한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형식이란 素材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진실한 본질이 농축되어 외부로 나타난 모습이다. 그런데 낭만주의에 있어서는 이 시민적 산문성은 창조적이며, 천재적인 주관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철학과 문학에서 인생이라는 소재를 인식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주관이 주도성을 취한다는 原理를 계승하였으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정반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고전주의의 경우, 주관이 주도성을 갖고 관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본질을 충실하게 파악하여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식의 과정 또는 예술형성의 과정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 부분에 불과하였고,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한 동기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낭만주의에 있어서는 主觀이 素材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며, 소재 위에 군림하여 소재를 다루어야만 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 주관의 優越性을 藝術的 創造의 本質이라 규정하고 문학이론과 실천의 중심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될 경우 유기적으로 소재에 구비되어 있는 素材의 特性, 素材의 實質은 모두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전능이라고 할 주관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즉 주관과 그 독단적인 自己運動이 예술과 인생철학의 알파(Alpha)이며, 오메가(Omega)이다.

인간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는 한결같이 독일의 俗物性에 저항해서 투쟁하였다. 그들은 독일의 각성과 인간성의 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들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한 인간은, 독일적인 빈곤 속에 자본주의의 分業이 초래한 굴욕적인 영향하에 있으면서도 인간성의 위대한 이상, 다면적으로 발달한 調和的인 人間이라는 위대한 이상을 도야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고전주의자들은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포기함으로써 독일의 속물정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市民意識의 각성을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고전주의의 근본이념은 항상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낭만주의자들의 俗物概念은 職人根性的인 人間(Der Banause)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문제는 다만 문인 씨클에서 담론되는 교양문제 정도로 위축되고, 평범한 속물에 대한 낭만주의자들의 투쟁은 정치적 투쟁에 머물러 한층 더 속물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實例가 노발리스의 「빌헬름 마이스터」 비판이다.

21) Georg Lukács: Die Romantik als Wendung in der deutsche Literatur, in: Romantikforschung, S. 40-52.



「빌헬름 마이스터」는 어느 의미에서 散文的이며, 近代的이다. 이 작품에서는 낭만적인 것은 소멸된다—自然詩나 神奇幻한 것도.—다만 평범한 인간적인 일만 다루었고 자연이나 신비주의는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 이 작품은 詩化된 시인적 가정적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는 신기한 것이 詩 또는 공상으로 취급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藝術的 無神論이 이 책의 정신이다. 대단히 經濟的이다. 산문적이고 값싼 소재로 詩的 效果를 달성하고 있다.]

“Wilhelm Meisters Lehrjahre“ sind gewissermaßen durchaus prosaisch—und modern. Das Romantische geht darin zugrunde—auch die Naturpoesie, das Wunderbare.—Er handelt bloß von gewöhnlichen menschlichen Dingen—die Natur und der Mystizismus sind ganz vergessen. Er ist eine poetisierte bürgerliche und häusliche Geschichte. Das Wunderbare darin wird ausdrücklich als Poesie und Schwärmerei behandelt. Künstlerischer Atheismus ist der Geist des Buchs. Sehr viel Ökonomie—mit prosaischem, wohlfeilem Stoff ein poetischer Effekt erreicht.

상기한 논술에서 투카치는 예술관에 있어서 계몽주의, 특히 고전주의의 비정치성을 지적하면서, 낭만주의도 입장은 다르다 해도 전자보다 오히려 한층 더 비정치적임을 공격하고 있거니와, 정치관에 관해서는 낭만주의의 反動性, 反知性主義를 공격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독일 낭만주의의 출발점은 프랑스혁명이었다. 즉 프랑스 혁명후의 유럽 情勢에서, 다시 말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 세계적 대사건과 독일과의 대결에서 생긴 것이다. 독일 낭만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동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에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에 적대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 고전주의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낭만주의 본질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하여 독일 낭만주의는 계몽주의 및 고전주의와 결별하고 자기자신을 의식하여 정신적 조류로서 확립되어 갔다. 그리하여 독일인 특히 독일의 지식인들은 세계사적 사건에 대하여, 즉 자기 조국의 運命形成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몽주의자들이나 고전주의자들이 취해 온 바와 같은 방관적 태도를 버리게 되었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1806년 프로이센군이 예나 會戰에서 패하였을 때이다.

그런데 정치적 전환기에 독일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미숙한 知的 傍觀者에 불과하였다. 독일에 있어서의 봉건적 유물을 청산함에 있어서 <라인 同盟化>에, 즉 나폴레옹에 기대할 것인가, 또는 국민해방운동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壓政에서 벗어나 봉건잔재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거나, 어느 정도나마 국내적 진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당면한 兩者擇一의 기로에서, 전자를 선택한 것은 고전주의자들과 계몽주의 후계자들이었다. 물론 당시로서는 후자의 길을 택하기에는 주체적 조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음이 사실이기는 하다. 헤겔은 독일의 재생을 「파리의 위대한 國法の 스승」(나폴레옹)에서 기대하였고, 계몽주의의 元老 포스(Voß)도 나폴레옹을 「우리의 동맹자」라고 불렀다. 괴테는 비단 나폴레옹 신봉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도 대나폴레옹 해방전쟁의

22) Novalis: in: Fischer Bücherei Nr. 121, S. 147.

결과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외국지배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

낭만주의자들은 그와는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中世를 讚美하고 愛國主義 藝術을 주창하였다. 그 결과 봉건적 절대주의 부활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중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독일의 小國分立主義(Die Kleinstaaterei), 봉건적 절대주의, 심지어 農奴制, 同業組合制(Das Zunftwesen)에 이르기까지 모든 <歷史적으로 되어 버린 것>을 맹목적으로 예찬하는 것이 도그마로 되었다. 그와 더불어 프랑스에 대한 배타주의적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나폴레옹 대항전의 결과 王政이 復古되자, 낭만주의는 反啓蒙主義時代(Der Obskurantismus)의 지도적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왕정복고시대는 <詩人과 思想家>의 국민에게는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암울한 시대였다. 그것은 壓制의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俗物支配의 시대이기도 하다. 속물성에 반대한 낭만주의가 투쟁적으로 唯美主義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아 어떤 세계관이나 예술적 주의, 주장보다도 강력하게 독일의 속물성을 조장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중세의 황제찬미, 사회적 정치적 속박이나 유기적으로 성장한 역사적 權力의 사이비 문학적 神格化, 정서생활의 찬미, 무의식적인 것과 共同體에 대한 反知性的이며 靜觀派 神秘主義的(quietistisch)인 沒入, 進歩와 자유주의적인 自己責任에 대한 증오 등은 현재도 독일인의 心情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지식인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한 것은 바로 낭만주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런 까닭에 낭만주의 비판은 독일문학사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낭만주의의 반동과 퇴폐를 확인하고 그 내적 모순을 비판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농민전쟁 이래 처음으로 民衆運動의 반영을 낭만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肯定的인 면이다. 즉 「少年의 魔笛 Des Knaben Wunderhorn」이나 그림형제의 童話 속에서 민중생활, 民衆藝術에로의 강력한 回歸를 볼 수 있다.

이상이 루카치가 파시즘을 체험한 마르크스주의 西歐지식인으로서 독일문학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독일문학소사」(1947) 5章에 수록한 「독일문학의 進歩로서의 낭만주의」의 요약이다.

#### IV.

反動的 낭만주의와 進歩的 낭만주의 : 낭만주의가 반동적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규정에 대하여 마르크제(Ludwig Marcuse)는 「반동적 낭만주의와 진보적 낭만주의」(1952)<sup>23)</sup>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낭만주의에 대한 가장 문제적인 定義의 하나는 낭만주의를 <반동적>이라고 가치평가하는

23) Ludwig Marcuse: Reaktionäre und Progressive Romantik, in: Begriffsbestimmung, S. 377-385.

경향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낭만주의에서 반동적 운동을 찾아보려는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웹스터(Webster)는 거침없이 「18세기 독일에서 반동적 운동이 시작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역사가, 문예학자, 음악사가들도 아무런 논평없이 이 〈반동적 낭만주의〉라는 범주로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어 권내에서는 게오르그 루카치를 필두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문학비평이 낭만주의를 解體의 文學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카치는 해체라는 말대신 〈帝國主義〉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자 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낭만주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이미 낭만주의 발족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애당초 〈반동적〉이란 봉건주의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의미개념이 보편화하여 후진적 사회와 그 이념을 〈진진〉시키려는 모든 힘, 老化되었거나 몽상적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힘을 封鎖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일방적인 단정에 대하여 낭만주의는 오로지 반동적이었는가, 그리고 반동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낭만파가 반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했고 반동 이데올로기와 신학에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아담 뮐러(Adam Müller), F. 술레겔 등이 19세기 초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왕정복고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카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카톨릭이야말로 프랑스혁명을 勃發시킨 여러가지 힘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벽이라고 생각하였다. F. 술레겔은 메테르니히의 어용시인이었고, 아담 뮐러는 지도적인 낭만주의적·반동적 이론가였다. 그는 낭만파에 의한 역사와 공동체 발전을 個體를 속박하는데 이용하였다. F. 술레겔은 한층 더 극단적이어서 개체에게는 정부에 대하여 유일한 권리가 허용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슬기로움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창하였다. 그의 이상은 카톨릭적 기반 위에 중세적·봉건적인 君主制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미루어 보아도 낭만주의의 결과 중의 하나가 정치적 반동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開拓者 生活의 결말 중의 하나가 몰락임과 같은 것이다. 반동은 낭만주의의 論理的 歸結이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지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마르쿠제는 상술한 판단의 논거로서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반동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하나의 낭만주의적 構想體, 즉 노발리스의 기독교적 유럽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독교 또는 유럽」이라는 노발리스의 에세이는 그의 낭만파 동인들에게도 불쾌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小説論을 너무나 음산하게 여겼고 「아테노임 Athenäum」誌에 발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마르쿠제가 보기에는 이 에세이에 담긴 노발리스의 이념—유럽적, 기독교적 중세의 아름다운 조화—은 예컨대 마치 고대 게르만인을 경건하고 용감한 우동생이라고 생각한 타키투스(Tacitus)의 이념이나, 원시적 인간을 無垢한 牧人이라고 생각한 루소의 이념, 또는 마르크스의 근원적으로 제국이 없는 사회라는 이념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빛나는 구상체는(의식적이건 무의식이건 간에) 항상 오로지 현실에 대한

24) ebd. S. 377. "The reactionary movement began in Germany in the eighteenth century."

예리한 비판을 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측면을 정당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노발리스를 마치 그가 세계사를 逆으로 회전시키려 한 것 같이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발리스는 「짐차 自己擴大를 하면서 發展하는 것이 역사의 소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를 찬양하고, 다만 그들의 반동적 행위, 즉 「종교를 국가의 한계내에 폐쇄하였다」는 행위만을 비난하였다. 그가 공격한 것은 신교 정신이 아니라 그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해체적 성향(Ungeist)이며, 또한 그가 反論한 것도 계몽주의의 정신이 아니라 그 해체적 작용을 한 성향이다. 노발리스는 19, 20 세기에 있어서 소위 <계몽주의자들>을 계몽한 탁월한 계몽주의자들의 계열에 속한다. 그 악명 높은 에세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비판적·진보적 요소는 거의 언제나 看過되어 왔다. 노발리스는 결국 진보적 낭만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다.

노발리스의 진보적 革命觀은 그의 斷章集 <花粉>에서도 명백하게 표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혁명의 관찰자들은 대부분, 특히 고상하고 현명한 척하는 자들은 혁명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전염병이라고 斷言하였다. 그들은 症狀만을 보는데 그쳤던 것이다. (...) 가장 제치있는 반대자들은 去勢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마 이 표면상의 질병이라는 것이 思春期の 위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sup>25)</sup>

Die meisten Beobachter der Revolution, besonders die Klugen und Vornehmen, haben sie für eine lebensgefährliche und ansteckende Krankheit erklärt. Sie sind bei den Symptomen stehengeblieben (...) Die genievollsten Gegner drangen auf Kastration. Sie merkten wohl, daß diese angebliche Krankheit nichts als Krise der eintretenden Pubertät sei.

그러나 단장 「信仰과 希望 또는 王과 王妃」에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Friedrich Wilhelm III 1770~1840)와 王妃 루이제(Luise)를 찬미한 점으로 보아, 결국 그는 保守的 프로이센의 君主主義者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론도 대두한다. 그러나 言語批判的인 안목으로 이 단장을 분석한다면, 그와 같은 이론은 근거가 없음을 밝힐 수 있다. 즉 여기서 <王>이라는 말은 한 현실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理想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王> <宮廷>같은 記號를 오로지 規範的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과 그 나라의 知識階級이 一體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어떠한 군주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 왕은 혁명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이미 退位한 것이며, 유럽의 군주들도 대부분 그러하였다.」<sup>26)</sup>

Dort gibt es keine Monarchie mehr, wo der König und die Intelligenz des Staats nicht mehr identisch sind. Daher war der König von Frankreich schon lange vor der Revolution dethronisiert, und so die meisten Fürsten Europas.

25) Novalis, S. 85 (Blütenstaub [Athenäum 1789]).

26) ebd., S. 115.

상기한 인용문은 노발리스가 결코 君主制主義者가 아님을 시사한다. 즉 그는 正統王家라면 덮어놓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君主의 規準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발리스의 <王>이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진보적 국가의 한 요소, 민주주의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요소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模範의이며, 公의 人物이라는 요소이다. 이런 인물이야말로 본래의 領導者(Der Führer)라는 낭만적 형상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노발리스는 독일 산업화시대 초기, 대중화시대 시초의 진보적 낭만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낭만주의의 핵심적 정신요인은 유토피아 구상 정신이라는 점을 노발리스의 에세이, 단장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낭만화에 관해 「세계는 낭만화되어야 한다. (...) 저속한 것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평상적인 것에 신비적 외양을 주고, 既知의 것에 未知의 품위를 부여하고, 유한한 것에는 무한한 외관을 부여함으로써 낭만화되는 것이다」<sup>27)</sup>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이미 알려진 種屬(Gattung)을 초월한 인간과 유사한 피조물에 대한 視野를 열어 준 것이며, 유토피아적인 면에 있어서 18세기 계몽주의자들 보다는 마르크스주의에 근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석에 의해서 마르크스는 종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想定한 「反動的 낭만주의」像을 역전시키고 있다 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가 노발리스의 에세이 「기독교 또는 유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비판적 진보적 요소를 지적한 것과 같이, 말쉬(Wilfried Malsch)도 논문 「유럽」<sup>28)</sup>에서 그 에세이에 대한 편견의 시정을 시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기독교 또는 유럽」이라는 題名の 유명한 노발리스의 에세이 또는 문학적 수사적 시도는 일반적으로 낭만주의, 복고주의, 카톨릭적 기독교주의로 전향하는 최초의 중요한 증언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즉 이 논설을 대부분의 독자는 혁명이나 공화국에 대한 공격, 中世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憧憬>의 표시라고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인상은 비단 노발리스를 비롯한 동시대인에 대한 受容태도에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상은 독일 문학의 歷史像까지도 부각시켜, 노발리스의 논술은 결국 「사실주의, 계몽주의, 종교개혁, 근대자연과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 해방의 첩계」까지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노발리스 자신이 「公的 講論, öffentliche Rede」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에세이를 면밀하게 고찰해 보면, 「文學에 관한 강론 poetische Rede」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유럽에 관한 이야기이며, 다음에 이 이야기의 유럽을 지목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발

27) ebd., S. 134, "Die Welt muß romantisiert werden. (...) Indem ich dem Gemeinen einen hohen Sinn, dem Gewöhnlichen ein geheimnisvolles Ansehn, dem Bekannten die Würde des Unbekannten, dem Endlichen einen unendlichen Schein gebe, so romantisiere ich es."

28) Wilfried Malsch: Europa. Poetische Rede des Novalis. Deutung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und Reflektion auf die Poesie in der Geschichte. Vorwort(1965), in: Romantikforschung, S. 198-202.

리스 수용과정에서 환영 또는 개탄의 초점인 過去에로의 回歸은 그 강론의 이야기 부분에 해당한다. 이야기는 話者에 의해서 歷史類型學의 史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가능성의 문제는 화자의 독자적 해석에 따른다. 즉 화자는 예언자와 같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는 동일한 <종교> 또는 <文學>의 아직 인식되지 않은 형태로서, 이미 인식된 형태와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발리스의 강론은 「歷史 속의 文學」에 대한 解釋學的 省察이다. 여기서 역사란 未認識의 문학이 自己認識에 도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모든 전기 낭만파 사람들이나 觀念派 사람들의 체험이나 마찬가지로 노발리스의 체험세계에서는 革命이란 人類의 自己形成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담당할 能力으로서의 <歷史>,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노발리스는 문학의 역사해석학적 자기인식이야 말로 이 能力에 자유롭고 평화건설적인 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노발리스의 文學的 講論은 전쟁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평화로의 推移를 혁명이라는 歷史的 表象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V.

浪漫主義의 니힐리즘: 루카치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독일 낭만주의를 부정적으로 비판한 것과는 달리 콜슈미트(Kohlschmidt)는 比較文藝學者의 입장에서 독일 낭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1953년에 발표한 논문 「낭만주의의 니힐리즘 Nihilismus der Romantik」<sup>29)</sup>에서 독일문화의 문제성 중의 하나가 낭만주의라는 견해를 논술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여러가지 긍정적 사실들과 결부시켜 평가하여 왔다. 즉 넘치는 감정, 풍부한 공상, 深遠한 思考, 종교성에 관한 강력한 思辯的 力動的 비약능력, 역사성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 등등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낭만주의에서 인식한 니힐리즘적 측면을 키에르케고르, 니이체, 토마스 만 등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낭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니힐리즘적 경향에 대한 판단을 한층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 이유는 낭만주의가 독일이 파국에 이르게 된 정신사적 前史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며, 독일의 파국은 결국 유럽의 파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만은 상술한 바와 같은 모티브를 文化批判的 見地에서 「魔의 山」 「파우스트博士」 등 문학작품에서, 또는 수다한 에세이에서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낭만주의가 종전과 같이 독일정신사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한 요인으로만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토마스 만이나 마찬가지로 프리츠 슈트리히는 독일문

29) Werner Kohlschmidt: Nihilismus der Romantik (1953), in: Romantikforschung, S. 53-66.

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저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sup>30)</sup> 제 4 판 序文에서 낭만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부정적 方向으로 기울어질 가능성과 파괴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洞察을 告白의 形式으로 밝힘으로써 낭만주의의 본질과 그 영향의 파괴적 側面을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낭만주의 비판을 논술하면서, 콜슈미트는 낭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反生命的이며, 위험한 측면을 니힐리즘으로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로, F. 슐레겔의 箴言形式으로 된 反語(Ironie)와 機知(Witz)에 관한 이론은 정신혁명의 강령에 기초가 되었으며, 그 이론적 歸結로서 想定된 無의 思想이 초기 낭만파의 思辯的 니힐리즘이다. 이 정신적 혁명은 가능한 한 모든 傳統的 價値를 轉倒시켜 最高價値와 最低價値를 끊임없이 대립시키거나 同一視하면서, 여러가지 對立概念을 辯證法的 遊戲로 처리하는 思考方式이다. 그와 같은 분위기나 형식이 종교적 사변을 니힐리즘적 사변으로 急轉시키는 데 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兩極端을 유희적으로 다루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創造와 破壞가 어느 순간에는 대립개념인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동일개념으로 나타난다. F. 슐레겔은 이로니가 여러 가치의 극단적인 否定인 동시에 탁월한 창조적 자세라고 정의하였다. 초기 낭만파의 사변적 니힐리즘은 이로니를 구사하여 모든 것을 의문시하는 過激性을 전개하는 중에 여러 가지 가치가 소멸해 갔다. 특히 形而上學的 空間이 상실되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다는 의식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변적 니힐리즘의 대표적 표출의 하나가 F. 슐레겔 作 「루신데 Lucinde」의 주인공 율리우스(Julius)의 허무적 성격이다. 告白錄이라고 할 루신데의 율리우스라는 인물은 일종의 정신적 관능주의자이며, 자신의 관능의 선정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 결과는 세계의 허무화이다. 耽美的 內面性에 의한 세계의 空洞化이다.

두번째는 作中 주인공들의 生活形態와 모티브의 상징성으로까지 침투하여 실존적으로 내포되어 감지할 수 있는 니힐리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와켄로더(Wackenroder)와 티에크(Tieck)의 작품에 나타난 時間不安(Zeitangst)의 니힐리즘이다. 倦怠는 시간의 空洞을 뜻하며, 시간의 空洞은 불안을 동반한다. 와켄로더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음악가 요셉 베르링거의 특이한 음악적 생애」<sup>31)</sup>의 주인공은 感情過多로 파멸하는 천재적 인물인데, 어느 일요일 산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날이 저물자 다음과 같이 심정을 토로한다.

「세계의 연극은 오늘로서는 이제 끝났다. 하나의 배우들은 모두 귀가해버렸다. (...) 모든 被造物들은 잠이 들었다. 내일 다시 突擊하기 위하여 休戰상태에 들어 갔다. (...) 인간의 생활과 天體의 運行도 바로 盤上에서 끊임없이 전개하는 기묘한 遊戲에 불과한 것인데, 결국 勝者는 다름 아닌 死神

30) F. Strich: Deutsche Klassik und Romantik, 4 Aufl., Bern 1949.

31) Wackenroder 사후에 Tieck가 가필하여 출간된 「心情吐露 Herzensergießungen eines kunstliebenden Klosterbruders」(1897)에 첨가되어 있는 Das merkwürdige musikalische Leben des Tonkünstlers Joseph Berlinger.

이외에 아무도 없다.—이런 것을 생각하면 미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sup>32)</sup>

Das Schauspiel der Welt war für diesen Tag zu Ende,—meine Schauspieler nach Hause gegangen. (….) schliefen alle seine Geschöpfe... Alles hatte nun Waffenstand, um morgen von neuem wieder loszubrechen: (….) und so daß das ganze Leben des Menschen, und das ganze Leben des gesamten Weltkörpers nichts ist, als so ein unaufhörliches, seltsames Brettspiel solcher weißen und schwarzen Felder, wobei am Ende keiner gewinnt als der leidige Tod,—das könnte einem in manchen Stunden den Kopf verrücken.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時間不安이라는 것이다. 充實한 瞬間과 失望의 瞬間이 무한히 교체하는 광막한 단조성 때문에 存在의 意味가 의심스러워지는 완전한 시간불안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와켄로더의 다른 작품 중 東洋風의 童話 「벌거벗은 聖者 Der nackte Heilige」<sup>33)</sup>에서도 그와 같은 상태를 볼 수 있다. 이 시간불안이야말로 虛無的 倦怠의 實存的 濃縮이며, 모든 形而上學的 慰安이 消滅하였다는 표현이며, 또한 단조로운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희생물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와켄로더와 交友雙을 이루고 있는 티이크의 書簡小說 「윌리엄 로벨 William Lovel」에서도 시간의식이 필연적으로 허무적 의식으로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自己嫌惡와 厭世, 人生에 대한 嘔吐와 恐怖, 虛無的 絶望 등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적 基本情調(Grundstimmung)를 이 작품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한 작품도 보기 드물다. 티이크의 소설에 제시된 허무적 성향은 낭만주의에 보편적인 기본적 정조이며, 여타의 낭만과 산문작품에 나타난 人物像의 세계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요인이다. 근대 독일문학에 있어서 낭만과판극이나 니힐리즘적 실존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풍성하게 창출되고 형성된 시대는 전무후무하다 하겠다.

× × ×

상술한 바와 같은 낭만주의의 특성이나 본질에 관한 견해차이는 論究의 不充分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다의성에 연유하는 것이다. 즉 다의적인 것을 一義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정교하게 구상하였다 해도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論者의 정치적 입장에서 一方의이고 傾向的인 공격적 해석에는 客觀性이 상실되어 있다. 낭만적 이론은 항상 변화하며, 浮動하는 까닭에 한 해석의 시도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논문이 쓰여졌으나, 여전히 낭만주의 또는 낭만적인 것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理想化의 시대나 일방적인 탄핵의 시대는 지나고 Die Zeit der Verklärung wie auch die der

32) Lambert Schneider (hg.): Werke und Briefe von Wilhelm Heinrich Wackenroder, Berlin 1938, S. 217.

33) vgl. ebd. S. 197ff.



bloßen Anklage vorüber」,<sup>34)</sup> 終戰後 성행하였던 사회사적 연구, 작품내재적 해석,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의한 낭만주의 연구를 거쳐, 文獻學的 연구에 의해서 낭만주의 연구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성고가 기대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Peter, Klaus (hg.): *Romantikforschung seit 1945*, Königstein T/S 1980. Darin: Kohlschmidt, Werner: *Nihilismus der Romantik* (1953), Lukács, Georg: *Die Romantik als Wendung in der deutschen Literatur* (1945), Malsch, Wilfried: *Europa. Poetische Rede des Novalis. Deutung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und Reflexion auf die Poesie in der Geschichte*. Vorwort (1965).
- Prang, Helmut (hg.): *Begriffsbestimmung der Romantik*, Darmstadt 1972. Darin: Blankenagel, John C.: *Die Hauptmerkmale der deutschen Romantik* (1940), Marcuse, Ludwig: *Reaktionäre und progressive Romantik* (1952).
- Ribbat, Ernst (hg.): *Romantik*, Athenäum Taschenbücher 2149, 1979. Darin: Rasch, Wolfdietrich: *Zum Verständnis der Romantik zur Aufklärung*.

34) Benno von Wiese (hg.): *Deutsche Dichter der Romantik. Ihr Leben und Werke*, Berlin 1971, S. 9.

**<Zusammenfassung>****Die geistwissenschaftliche Diskussion der deutschen Romantik****Myung-Yul Chi**

Helmut Prang, Herausgeber von 「Begriffsbestimmung der Romantik 1968」, meinte in der Einleitung folgendes:

Es gibt in dem Jahrzehnte seit 1910 annähernd 700 kleinere Aufsätze und größere Abhandlungen, die sich vornehmlich mit grundsätzlichen Fragen der Wesensdeutung oder Begriffsbestimmung "der" Romantik oder "des" Romantischen befassen.

Wenn man die 2 Jahrzehnten danach herausgegebenen Abhandlungen dazuzählt, kann ihre Zahl unvorstellbar groß vermehrt sein. Daher ist es fast unnötig, noch eine neue Begriffsbestimmung zu definieren oder die Wesensforschung zu wagen.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wichtigste Romantik-forschungen, die seit 1945 herausgegeben sind, und versucht sie nebeneinander vergleichend zu analysieren. Hier zitierte Schriften sind folgende:

1. Wolfdietrich Rasch: Zum Verhältnis der Romantik zur Aufklärung.
2. Ludwig Marcuse: Reaktionäre und progressive Romantik.
3. Werner Kohlschmidt: Nihilismus der Romantik.
4. Wilfried Malsch: Europa. Poetische Rede des Novalis. Deutung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und Reflexion auf die Poesie in der Geschichte. Vorwort.
5. Claus Träger: Ursprünge und Stellung der Romantik.